

지역민이 함께 만든 '광주광역시 기후변화 85년사' 『기후로 바라본 광주, 그리고 우리』 도서 발간기념회 개최

-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, 지역민 공모를 통한 기후변화 경험담 수록

-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서장원)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(원장 고상연),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(상임회장 이운기)는 12월 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85년(1939~2023)의 이야기를 담은 『기후로 바라본 광주, 그리고 우리』 도서 발간기념회를 개최하였다.



<‘24. 12. 6.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85년사(1939~2023) 발간기념회>

- 지난해 여름부터 세 기관은 지역민들이 기후변화를 일상에서 더욱 가깝게 체감할 수 있고, 지역의 탄소중립·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는 방법론을 찾고자 머리를 맞대었고, 역할과 예산을 나누어 공동협업과제로 ‘광주광역시 기후변화 85년사(1939~2023년)’를 발간하기로 마음을 모았다.

- 역사서의 제목은 ‘기후로 바라본 광주, 그리고 우리’ 로 총 3개 장으로 구성하였다. 1장 ‘날씨가 그린 광주’에서는 무등산을 포함한 광주의 기후변화 현황을 기상요소(기온, 비, 눈 등)별로 읽기 쉽게 작성하였다. 뿐만아니라 도서 곳곳에는 전국 최초 기후 역사 총정리 사업으로 발굴된 옛 시절 광주의 모습과 날씨나 기후와 관계된 지역민들의 추억 가득한 사진을 함께 실어 생동감을 더했다.
- 2장 ‘기억 속 빛고을 이야기’에서는 광주 기후변화 경험 사례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지역민들의 생생한 기후변화 이야기로 구성하였으며, 실제 지역민들이 경험했던 옛 기후 관련 기억들이 담겨 있어 추억 여행을 떠날 수 있다.
- 3장 ‘광주, 기후변화의 미래’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광주 기후요소(기온, 강수량 등), 극한기후지수(폭염일수, 호우일수 등), 계절길이 등을 산출하여 미래 광주의 기후 모습을 수록하였다.

○ 발간된 도서는 지역민들이 살아온 삶의 발자국 곳곳에 묻어있는 기후변화 이야기를 담아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생생하게 느끼고,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. 본 도서는 광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 만나볼 수 있다.

□ 세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탄소중립·녹색성장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,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김연희 (062-720-0660)
		담당자	주무관	이기혜 (062-720-0667)

※ 광주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분석으로 과학적인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